

옛날 초록동이가
간곤하게 사는다.
히려는 산에
굴채 주는 정동줄을
걸으레 갔단
징심밥을 먹엄더니,
산신백관이
“너 먹는 거 뭐냐?” 하니,
“좋지 못한 수세범벅입네다.” 한
“나를 조금 주민 먹어보겠다.” 현
드리니,
산신백관이 잡수고,
“맛이 좋니,
너의 사는 인간이 가민
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싣느냐?”
현,
“좋은 음식은 먹기가
어렵습네다마는,
이런 음식은
먹기가 요절흡네다.”
“게멘, 너광 곶이 가겠다.”
경한,
그 어루신이 오란,
고내오름 큰신머들로
좌정하였단,
그 누계가
나쁜 음식이나 존 음식이나
잡습생 하는 말이 읊서,

하를날은
백관님이 초록동일 불러서,
“아! 너의 고단 가민
이런다 하더니
무우 소식이 었다.”
초록동이가 말을 하되,
“암만 신넌들
7만이 앓아시민
누게라 뭐 잡습생 흡네까?
무쇠쌀에 무쇠활에
이 ㅁ을 백성들에
훈대씩 쏘아봅서,
그 ㅈ손에 빙이 나고
모든 불펜이 나민
우찬흡네다.”
이젠 산신백관이
초록동이 말대로 하니,
그제사 우찬흡이 났습네다.
그영하난, 하른은,
을서님광 뱅서님이,
“산신백관님이 좋은 디
좌정했다” 하니 강 보젠, 하연
구경초로 가고 보니
그 장소가 하두 ㅁ심에 들고
쟁길터도 좋아지고 하난
산신백관님 보고,
“나를 입참시겨 줘서.” 하난,
앞으로 입참을 시겨 주고,
서저동궁이 넘어가다가 소식 들언,
또 인척초록 종댄 하연
간 보난 아닐까 좋아지니,

“나를 입참시겨 줘서.” 하니
이번엔
서으로 입참을 시겨,
그영하니 이 당엔
을서님, 병서님, 서저동궁이
뜩로뜩로 좌정하니
조손들이 이 당에 가쟁 하니
메도 잔도 지물도
훈기에 올릴지라도
그 때 입참시킨
신전님을 거느리곡
초록동이도
산신백관님을 인도시기난
이 지금도 거느려줍네다.
옛날엔 이 당 앞으론
물탕 가당은
물발 절어부난
하매하니여사 지나가곡
했수다.
돛괴기 먹은 조손은
이 당에 가지 못하는
뭍고 뭍은 조상이우다.

제일 1월 14일

7월 14일,

<애월면 하가리 여무 60세 장선아님>